

해리 사람들 따뜻한 이야기

고창군 해리면 소식지 월간 '마을신문 해리' 발간

고창군 해리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 '마을신문 해리'가 발간됐다.

해리면은 29일 주민 기자가 직접 취재한 면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미담사례, 봉사활동 소식 등 마을의 따뜻한 소식을 주민과 재외군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창간했다고 전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이야기, 마을신문 해리'는 '책마을 해리' 주관으로 발행되며 발간 비용도 전액 책마을 해리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해리면과 해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해리면 기관사회단체에서는 지역 곳곳과 재외군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발행부수는 3000부로 타블로이드 판, 전체 8면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매달 1차례 발간될 예정이다.

지면 구성은 해리면 공동체 탐방, 해리면 기관단체 소식, 해리면의 마을·인물, 인물교양 이야기, 학교와 고창군 소식, 그리고 책마을 해리에 대한 소개 등 내실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마을신문 해리

특히, 마을의 원로 등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고견을 듣는 '해리면 인물' 코너에서는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마을 해리 이대건 대표는 "면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으로 만들어지는 마을신문을 통해 정겨운 마을의 소식을 전하겠다"며 "자랑

스러운 해리면을 더욱 널리 알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연 해리면장은 "해리면의 다양하고 따뜻한 소식을 면민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재외군민들에게 전하는 마을신문으로 해리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군청·읍·면사무소 건물번호판 치즈모양 자율형 LED 번호판 설치

임실군은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과 치즈홍보를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건물번호판을 치즈 모양의 자율형 LED 번호판을 설치했다.

군은 건물번호판에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치즈조형물을 형상화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를 홍보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고, 미관 및 가시성이 높아져 민간 건물에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으로 특색 있게 교체해 도로명 주소와 임실치즈의 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성을 드러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여 역사문화 탐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실지회 회원 40명은 충남 부여군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을 28일 실시했다.

부여군의 대표 유적지인 백제왕릉원을 시작으로 부여박물관, 부소산, 궁남지 등을 탐방했으며, 회원들은 모든 일정을 빠짐없이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

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허용욱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외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탐방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 탈북민 초청 정착지원 간담회

남원경찰서와 보안협력위원회는 남원지역 탈북민을 초청해 보안협력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경찰서와 보안협력위원회는 탈북민을 초청해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간담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청 탈북민 A씨의 고민인 희망일자리(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탈북민들의 문화적응과 심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탐방 행사 추진사업도 논의되었다.

김희식 위원장은 "지난달 취업을 지원해준 고령의 탈북민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탈북민이 희망하는 일 자리 알선과 '이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연 정보보안과장은 전화금융사기 및 4대악 피해 예방법을 꼼꼼히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바래봉 철쭉제 성공기원 행사 30일 개최

오전 9시부터 허브밸리 원형광장서 노래자랑·학생사생대회 등 진행

제22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원형광장에서 개최된다.

운봉읍 애향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기념행사는 터울림 공연과 지리산 철쭉제, 기념식을 시작으로 초청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학생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행사장 내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지리산 야생식물 사진전, 허브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바래봉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기 운봉읍애향회장은 "바래봉을 찾은 관광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제22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원형광장에서 개최된다.

한편, 남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는 지난 4월 23일 개장하여 오는 5월 22

일까지 1개월간 개최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산물 가공 담당자 교육

임실군은 시·군 농산물 가공사업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연찬회'를 지난 27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강화되는 위생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위생법규와 가공 원리를 파악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군 농기센터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트렌드 정보 공유를 통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부와 회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담당자들의 전문능력 배양과 시·군센터 사례발표를 통한 정보공유로 효율적 가공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산물 가공 전문가와 함께 과일 주스, 잼 제조 실습시간을 마련해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정보화마을, 새 체험거리 제공

고창군 5개 정보화마을(하전, 북분자, 고사리, 고인돌, 반안)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 제공에 적극 나섰다.

5개 정보화마을은 갯벌체험, 북분자따기체험 등 청정 자연을 테마로 하는 농촌체험을 통해 지역특산물 판로개척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주민들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참여해 도자기로 종 만들어보기와 같은 체험거리를 제공하면서 군민과 관광객에게 마을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판매에 나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 행복한 학교만들기 앞장

고창경찰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FO)들이 학교현장과 학생 결으로 직접 찾아가며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어 호응이 높다.

고창경찰서에서는 점심시간대에는 '사랑의 밥퍼', '런치 간담회'를 운영하고 학교시간대에는 이동상담소를 학교별로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 등 모든 어려움을 상담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을 이겨라!' 제기차기 및 3인 농구도 하다보니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고창'을 만들자는 공감대도 쉼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